

# I. A. 리처즈와 의사소통의 문제: 『수사학의 철학』과 신수사학\*

박 우 수

단독 / 한국의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리처즈의 『수사학의 철학』은 예전의 수사학이 의사 전달의 수단인 언어 자체의 성격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출발해서 수사학의 목적을 오해의 치유에 있다고 본다. 리처즈는 어떻게 단어가 의미를 갖는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다의성과 의미 분석을 구체적인 발화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에게 의미란 일종의 발생 사건이다. 구체적 의미의 집결체인 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체계로서 주체를 지배하고 소환하고 있다는 알튀세나 푸코의 주장과 달리 리처즈는 언어의 창조적 사용과 이를 통한 마음의 개발과 자기완성을 신뢰하는 인문주의자의 모습을 간직한다. 그는 주체의 자리에 언어를 대신한 구조주의자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사고와 언어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의 특정한 위치와 차이 및 유사성으로 설명하는 점에서 리처즈는 구조주의자들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선구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주체를 언어의 감옥에 수동적으로 가두지 않는다. 의미는 “대표성을 위임 받은 효과(표현)”라는 리처즈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평화, 구성원들의 주체적 참여에 대한 그의 굳은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리처즈의 수사학과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은 화제발견이나 배열, 전달과 같은 구체적인 수사학의 구성요소들을 간과하고 의미의 발생과 이해에 집중함

---

\* 본 연구는 2022년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으로써 메타 수사학, 혹은 미시 수사학으로 그치고 만다. 그렇지만 그의 수사학 이론은 화자에서 청자로 수사학의 초점을 옮기고, 수사학을 해석학, 혹은 고전 시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19세기 이래로 분리의 길을 걸어온 수사학과 시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주제어 : 수사학, 발화 상황, 문맥, 성실(정성), 오해**

## I

아이버 암스트롱 리처즈(Ivor Armstrong Richards, 1893-1979)는 우리에게도 신비평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자세히 읽기와 실제비평이란 방법론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작가의 전기적, 사회·정치적 배경 등을 배제하고 작품 자체로 꼼꼼히 읽고 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시인의 정서적 경험이 변용·응축된 작품이 어떻게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심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경험은 다르지 않으며, 예술에 있어서 시적 체험의 전달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독자/수용자의 해석과 예술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리처즈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예술 작품이 체화하고 있는 심리적 경험의 폭과 깊이가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며, 독자의 수용 태도 역시 어때야 하는지, 텍스트와 독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야기되는지 등 경험 심리학적 문학 접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문학은 그에게 단지 향유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기쁨을 통해서 독자를 좀 더 나은 인간, 자기완성의 길로 인도하는 “사유의 도구”이다. 흥미롭게도 문학이 주는 이런 효용적 가치를 리처즈는 공자에게서 발견한다.

공자 말씀하시길 소자는 어찌하여 시를 배우지 아니하느냐? 시는 발분할 만하고, 사물을 잘 관찰할 만하며 여러 사람들과 화합할 만하며, 불평을 호소할 만도 하며, 가까이서 아버지를 섬길 만하고, 멀리서 임금을 섬길 만하고, 새와 짐승과 초록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게 한다. (김종무 383)

공자에게 시를 배우다는 것은 사물의 이름과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윤리를 알고 사회적 인간이 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자는 시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담장에 정면에서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사회와 담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 된다. 공자는 시와 예를 상호적인 것으로 문학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데, 그는 아들 백어에게 시를 배우지 못하면 말을 잘 할 수 없다고 강조해서 말한다. 리처즈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문학의 전달과 효용적 기능을 중요시한다.

그 동안 리처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비평의 방법론과 관련되었거나, 그의 시와 언어에 대한 견해가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역사 비평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에 와서는 그의 문맥이론과 의미의 발생, 다의성 등에 주목하여 구조주의 문학비평과의 근친성이나 데리다의 의미의 차연, 혹은 스탠리 피쉬(Stanley Fish)의 독자반응이론 등과 관련하여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그러나 리처즈에 대한 비평은 여전히 1920년대 그의 초기 문학이론들에 국한되거나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비평적인 편향을 바로잡고 리처즈의 문학에 대한 생각이 의사전달 기능(수사학)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의 언어에 대한 생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는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그것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언어의 속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단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자기개발과 인격완성을 위한 길이자 방법이다. 문학의 교육적 기능을 그는 동서양의 고전을 통해 두루 발견한다. 그에게 언어는 인간의 사유를 매개하고 이끌며, 정신의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리처즈는 세속화된 빅토리아 사회에서 종교가 그 초월적인 가치와 교의를 상실한

마당에 시가 물려드는 무질서와 위협을 막아 주는 버팀목이라고 주장했던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 1822-86)의 인문주의 정신을 계승한 인물이다. 아널드는 교양이란 사분의 삼이 독서에 의존한다고 말하는데, 위대한 정신의 담지체인 위대한 고전들이 이질적인 문화의 혼종과 상업화로 치닫고 있는 대중 매체들의 범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역사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문학의 공리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리처즈는 언어를 인간의 축복이자 저주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의사소통은 비록 왜곡과 오해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인간의 정신이 만나는 진정한 교류의 장이며 자아 확장과 자기완성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자 도구이다. 리처즈는 예술 작품의 정서적 전달 기능에 주목한 만큼 처음부터 그의 관심은 의사소통에 있다. 따라서 그가 예술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서 수사적인 의사소통과 진리 발견의 방법으로서 논쟁술이 아니라 변증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학의 철학』(1936)으로 구체화된 리처즈의 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언어와 의미,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수사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리처즈의 분석은 발화자보다는 수신자와 메시지의 해석에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생전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중일 전쟁을 경험한 그에게 언어와 예술을 통한 마음의 개선과 발전, 자기완성의 실현은 매우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였으며, 인간의 구원이라는 인문학자의 사명에 부과된 윤리적인 당위였다. 모든 인간의 해석과 반응은 이해 관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표는 다분히 이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절실한 것이었다. 그 목표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세계가 말로 이뤄진 직조물임을 강조한 리처즈에게 언어와 이를 매개로 한 예술과 의사소통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는 언어 자체의 성격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선결 조건으로 필요로 한다. 스탠리 하이먼(Stanley Hyman)의 표현대로 리처즈는 프란시스 베이컨 이래 그 누구보다 모든 학문 분야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은 사람이며, 인간 정신의 전 영역이 그의 연구 분야였다(315). 이런 이유로 하딩(D.W. Harding)같은 비평가의 리처즈를 두고 ‘아마추어’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79).

공자와 맹자에 대한 리처즈의 관심은 케임브리지의 고전 철학자인 로위스 디킨슨(Lowes Dickinson) 교수의 영향이다. 리처즈는 하버드 대학의 루벤 브로워(Reuben Brower) 교수와의 대담에서 디킨슨 교수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말하고 있다. 리처즈는 디킨슨의 저서 『현대판 향연』(*A Modern Symposium*)이 자신에게 일종의 성경이었으며, 줄줄 외울 정도의 책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중용』을 자신들의 논의에 끌어들이는 사람은 제임스 우드였다(14). 디킨슨은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서구의 야만적인 약탈과 탐욕을 질타한 『중국 관리가 보낸 편지』(*Letters from a Chinese Official*)라는 글에서 특히 공자의 인의 사상을 부각시키며 중국인들의 예와 질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인이란 정신적이고 영원한 존재로 세대를 거듭하며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 존재는 천지간의 매개자이며, 궁극적인 이상과 존재하는 사실 간의 매개자이다. 땅을 하늘에 올리려는 부단하고 경건한 노력을 통해 지금 현재로는 단지 이념으로만 존재하는 선을 사실상 실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최종 목표이자 종착점이다. 이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서로 각자의 개체성을 달성하며 모두가 신성과 하나가 된다. (Russo 44에서 재인용)

공자가 말하는 ‘인’을 곧 동양적 화합과 자기완성, 나아가 초월적인 신성한 힘과 하나가 되는 질서와 통일의 원리로 해석한 디킨슨의 생각은 리처즈와 그의 동료들이 초기 미학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국 고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 여기서 디킨슨이 말하는 인의 개념은 맹자의 ‘성’의 개념에 더욱 근접해 있다. 문학을 종교의 차원까지 끌어올려 문학적 경험이 주는 마음의 변화, 발전, 즉 개성을 강조하는 리처즈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플라톤의 변증법, 맹자의 성실 및 진실성, 콜리치의 상상력을 동일한 궤도에 놓고 이들 상이한 어휘들을 일종의 다의적인 동의어로 취급한다. 리처즈가 말하는 수사학 역시 매우 좁은 의미에서 일종의 대화술로 언어를 매개로 한 정신의 교감이나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예술 작품과 다르지 않다.

『미학의 토대들』에서 리처즈와 그의 동료들은 공감각을 아름다움이라 정의하며, 공감각, 즉 서로 다른 정서적 충동들이 방해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중용』에서 말하는 평정과 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저자들은 제임스 레그(James Legge)가 중국 고전 총서 제1권으로 번역한 영역본을 인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글 번역을 인용해서 살펴본다.

정성이란 하늘의 도요, 정성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정성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알맞게 되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어 조용히 도에 알맞은 것이니 성인이다. 정성되게 하는 것은 선을 가리어 굳게 잡는 것이다. (263; 4:1-4)

정성됨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게 하는 까닭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이루는 것은 인이요, 만물을 이룬은 지로서 성의 덕이니, 안팎을 합치게 하는 도이다. (274; 4:6)

정성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말하고, 밝음으로 말미암아 정성되어짐을 교라 말한다. 정성되면 곧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정성되어지는 것이다. (267; 4:2)

정성, 혹은 진실 됨에 관한 이들 일련의 인용문에서 리처즈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와 성의 일맥상통을 통하여 직관적 분별력이 가져오는 사람의 자기완성이다. 사람이 상호적인 좌절이나 간섭 없이 보다 많은 복잡다기한 충동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런 만큼 그는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는 셈이며,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이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리처즈는 지적 경험의 유기적 구성과 조화를 인격의 완성이라는 가치 실현의 장으로 옮겨 놓고 있다.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보다 우월한 정서적 혹은 지적 경험을 가진 인격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도구이다(Richards, *Foundations* 67). 리처즈는 조화와 질서를 가져다주는 예술 작품을 성별의 차이, 문화의 이질성, 신분의 차이, 시공의 거리 등을 뛰어 넘어 인간을 보편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가교라고

주장한다. 이 점은 그가 헤겔과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을 절대정신의 구현이자 완성으로 간주하며 예술 작품을 물신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보편성의 추구에 머무는 인문주의자의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리처즈는 이어서 출판한 『문학비평의 원리들』(1924)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층동들의 평정이라는 성실의 개념을 콜리지의 상상력 개념과 연결 짓는다. 서로 다른 층동과 이해를 어떤 특정한 시각에 함몰되어 한 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공존을 함께 같이 바라보는 조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조화로운 평정심을 획득함으로써 영혼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유희가 가능하다. 이 놀이 층동 가운데서 지성과 감성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는데, 이것은 앞서 공자가 말했던 성실의 결과물이다. 이제 리처즈는 이러한 진실됨, 성실의 개념을 콜리지가 말하는 상상력 가운데서 발견한다.

완전한 시인은 사람의 온 정신을 활동시킨다. 물론 정신의 각 기능들의 가치의 우열에 따라 종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케 한다. 시인은 통일의 기초와 색조를 확산시켜, 우리가 “상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종합적, 미술적 힘에 의하여 각 기능들을 화합, 융합한다. 이 힘은 의지와 이해력에 의하여 처음 작용되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은근한 통제를 받으면서도, 서로 반대되고 불일치하는 성질들 사이의 균형 내지 화해를 이룬다. 즉 다름과 같음을, 보편과 특수를, 관념과 심상을, 개체와 대표를, 새롭고 신선한 느낌과 오래고 친숙한 사물들을, 비상한 감정과 비상한 질서를, 항상 깨어 있는 판단력과 지속적인 자제력과 심오하고 격렬한 열정을 화해시키고 균형을 이루어 준다.<sup>2)</sup>

리처즈는 억압이 제거되고 신경계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는 상충되는 층동들의 균형과 평정의 상태를 콜리지의 상상력 가운데서 찾고 있는데, 이는 보편에서 특수를, 특수에서 보편이 구현되는 통일의 순간이며 개체의 자기완성의 순간이다. 이것이 곧 중용의 정신이며, 맹자가 말하는 진정한 성(hsing)의 개념이다. 리처즈에 따르면 맹자가 말하는 성, 혹은 성실이란 정신의 완성, 자아 발전을 향한 성향을 의미하는데, 동물과

구분되는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삶의 산물이며, 모든 가치의 원천이다(Richards, *Mencius* 64, 71, 78). 성선의 순간은 전인성이 발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관조가 가능하며,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이게도 몰개성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리처즈는 실제로 이러한 상상력의 발현 순간, 자기완성의 순간을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그는 톨스토이가 말하는 예술 작품의 정서적 오염이 가능하려면, 다시 말해서 최상의 전달 능력에 필요한 가장 어려운 전제 조건은 예술가 자신이 모든 충동의 경험이 환기하는 곳에 어떠한 방해나 장애도 없이 온전하고 자유롭게 온 정신으로 참여하는 진실성이다. 톨스토이는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예술가의 진지성과 예술의 도덕성을 동일시하는데, 예술가의 온 마음이 자유롭게 구현된 예술 작품이라야 독자나 수용자에게 그와 맞먹는 다양한 충동 경험이 고스란히 전달되며, 이를 통해서 수용자는 동질의 평정과 질서를 경험한다. 예술가의 진정한 정서적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모조품에 대한 톨스토이의 비난은 기계에 의한 복제품 예술이 진정한 아우라를 상실했다고 진단하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진정한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발신자와 수신자 양편에서 모두 온 정신을 다하는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리처즈는 콜리지(S. T. Coleridge)의 상상력 이론을 그의 『콜리지와 상상력』(1934)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한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력이 인간의 전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관과 객관, 지성과 감성의 융합과 통일을 가능케 하는 신비한 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의 의식을 증진시켜 그 증진된 의식이 발견한 우리 본성의 미지의 영역의 어떤 부분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우리의 의지가 정복하고 이성의 지배 하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Coleridge 139)

정신의 활동이라는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서 정신은 관습과 감각들의 외양을 넘어 정신의 세계로 고양된다. 이 고양된 관념의 세계에서의 삶을 콜리지는 모든 진정한 지혜가 가능하게 하는 실체화의 원리이자 인간성의 모든 모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는 신성한 충동이라고 부른다(Richards, *Mencius* 167). 정성의 상태에서 존재와 앎이 하나가 되듯이 적극적인 상상력의 활동을 통해서 개성은 마음의 경험과 혼합된다. 이 혼합의 상태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고, 이보다 차원 높은 개념의 논리 안에서 존재와 앎은 역시 하나이다. 공자와 맹자의 정성 개념을 콜리지의 상상력 이론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 리처즈의 공헌이다 (박우수 32).

상상력과 정성(진정)을 연결 짓는 리처즈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의 『실제비평』에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서 그는 지적인 믿음과 정서적인 믿음을 구분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성 개념을 다시 끌어들인다. 그의 이 구분은 언어를 지시적 용법과 정서적 용법, 과학의 언어와 시의 언어, 진술과 의사 진술로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문제가 있지만, 분별없이 과도한 감정에 탐닉하는 감상주의야말로 시의 이해를 방해하는 진정성이 결여된 표본으로 꼽을 때 그가 말하는 진정성이란 상투적 반응이나 편견, 반성적 사유가 동반되지 않은 선입견 등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의 온전한 해석을 방해하는 이러한 진정성이 결여된 반응이나 정서는 역시 건강한 의사소통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리처즈는 진정성을 충동의 재조직화(질서화)를 향한 경향이라고도 정의하는데, 이 경향은 여러 충동들이 서로서로 최소한의 간섭이 가능한 상태로 재질서화 될 때 가장 성공적이라고 설명함으로써(56, 286-87)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정성(진정)을 마음속에서 보다 완전한 질서를 추구하는 경향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성이 보다 온전한 자아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그의 정성 개념은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으로 이어진다. 리처즈는 보다 완전한 질서에서의 추구 노력이 질병이나,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나, 경험과의 연결 고리를 상실했다는 생각이나 느낌으로 좌절될 때 사람들은 불성실해 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고와 정서가 현실과 하나로 부합되는 순간은 성실이 가져온 결과이지만, 이것은 끊임없는 탐구와 숙고를 필요로 한다. 직관이란 성실에 도달한 자만이 누

릴 수 있는 특권이다(287). 정성(진정)이 신비주의로 떨어지는 것을 적극 경계하는 경험주의자 리처즈는 성실성을 고양시키는 기술 혹은 의식과 같은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 1) 인간의 외로움(고립된 인간 상황)
- 2)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함에 처한 생사의 사실들
- 3) 생각할 수 없는 우주의 광대무변함
- 4) 시간의 관점에서의 인간의 자리
- 5)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중죄 (290)

리처즈가 제시하는 이들 사고의 도구들은 교리가 아니라 명상의 대상이다. 신비주의 명상가들의 경험과 유사성을 보이는 이들 화두들은 인간의 한계를 끝없이 자각하고 다음 단계의 보다 완전한 자아실현을 위한 이정표가 된다. 자아실현을 위한 성실에 이르는 길들을 이처럼 도식화한다는 점에서 리처즈는 엘리엇(T. S. Eliot)이 정신수양을 위한 섭생법이라고 비아냥거리듯이(132-35) 자신이 것처럼 경계하던 상투적 반응이나 감상주의로 떨어지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명제들이 리처즈의 의사소통이라는 수사학 이론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발화나 시의 문맥 개념이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하나의 맥락은 다른 많은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맥락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의미의 의미』 부록으로 수록된 글에서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가 말하듯이 컨텍스트 개념은 충분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크게 확장되어야 한다. 문맥의 확장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병행하는 현상이며 리처즈는 이것을 성실의 개념으로 확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전달 기능을 강조한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매체인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으로부터 가능하다.

## II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언어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대중적으로 풀어 쓴 책이 리처즈의 『수사학의 철학』(1936)이다.<sup>3)</sup> 이 책은 1936년 2월과 3월에 걸쳐 미국의 브린 모어(Bryn Mawr) 대학에서 행했던 여섯 차례의 강연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말의 의미와 언어 자체의 속성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만큼 고전적인 의미에서 수사학의 분야를 역사적으로 개관하지도 않으며, 연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리처즈는 당시 미국의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던 작문 교육의 일환으로 추락한 비유법이나 문체론에 치우친 고전 수사학을 통째로 부정한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일종의 메타 언어 분석으로서의 수사학은 신수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즈가 자신의 저서를 『수사학의 철학』이라고 이름 붙인 데에는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의 『수사학의 철학』(1779)과 마찬가지로 수사학 이론을 인간의 본성 탐구와 관련지어 구체적인 실천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구축하겠다는 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경험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캠벨의 수사학 이론은 사고와 표현이 구체적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경험주의적 논리와 사실의 수사학을 주장한다. 캠벨은 언어를 사용하는 시나 웅변과 같은 언어 예술이 정보 전달이나 확신 심어 주기, 즐거움을 주거나 감동이나 설득의 방식을 통해서 청자의 영혼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들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Campbell 67). 시를 웅변의 한 분야로 간주하는 캠벨은 웅변을 사상의 전달뿐만 아니라 감정, 걱정, 태도와 목적을 전달하는 거대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라고 주장한다(73). 시와 웅변을 의사소통의 기술로 여기며, 특히 이것이 청자(수용자)의 영혼에 미치는 정서적 반응 분석에 주목한 캠벨의 경험적 분석법을 리처즈는 자신의 수사학 이론에서 언어의 속성과 의미 자체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 이어 간다.

제1강인 “서론”에서 리처즈는 수사학의 목적이 오해와 그 치유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설득이나 동일화와 같은 목적 지향적인 수사학의 목표와는 사뭇 거리가 있다. 리처즈가 오해를 강조할 때 그는 오늘날의 의사소통과 그 언어

가 광고, 대중 매체의 발달, 문화적 혼종 등으로 매우 왜곡되어 오해와 불통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 위협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언어와 그 의미에 대한 원숙한 이해는 원만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대의 시급한 과제이다. 언어의 작용방식을 안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개선시키는 일이다(17-18). 그는 앞으로 언어의 작용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생각의 도구로 몇 가지 공리를 제시하는데, 이들 공리들이 실천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흠스의 말을 빌려 설명한다.

철학의 목적이나 범주는 전에 관찰된 결과를 우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물체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게 함으로써 인간 삶의 편익을 위하여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물질, 힘, 근면이 허용할 수 있는 한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 지식의 목적은 힘이다. 공리(기하학자들 사이에서는 속성의 발견을 위해서 활용되는)의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심사숙고의 목적은 어떤 행위, 혹은 행해져야 할 일의 실행에 있다.4)

흠스의 말을 빌려서 리처즈는 자신의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다분히 영국의 경험주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설명하며, 자신의 이론적 설명은 단지 실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함을 강조한다. 도끼자루를 손에 잡고서 도끼자루를 찍어내듯이, 이론적인 해석과 분석은 경험적인 현실 가운데서의 실천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리처즈의 발언은 그의 실용주의적이며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제2장 「담론의 목적과 문맥의 유형들」은 말의 의미가 문맥에 의존한다는 리처즈의 지속적인 주장을 피력한다. 말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상식이나 심리학과 같은 다른 학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살아 깨어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새로운 수사학은 곧 말의 이해와 오해에 대한 연구에 다름 아닌데, 이 부활된 새로운 수사학은 거시적으로는 담론의 다양한 배열의 효과를 논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의미의 근본적 추측 단위의 상호 관계가 발생하게 된 조건들에 관한 공리를 사용함으로써 의미의 양식에 관한 자

체적 탐구를 수행해야만 한다(23). 리처즈는 어휘의 의미, 다의성과 문맥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자신의 수사학에 대한 설명이 화제 발견이나 배열, 문체, 전달, 기억과 같은 수사학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옛날 수사학의 설명 방식을 벗어나 말의 의미 작용에 대한 미시 분석에 머물 것임을 밝힌다.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리처즈가 오그던(C. K. Ogden)과 공저한 『의미의 의미』(1923)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이다. 이곳에서 저자들은 말이란 상징, 혹은 기호이며, 기호란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의미가 원래 단어나 기호 그 자체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은 말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미신”에 빠지는 것이다. 기호의 지시 대상은 절대로 유일무이한 것이 될 수 없으며, 해석자는 문맥 안에서 그 기호를 이해한다. 이들의 문맥 해석 이론은 단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일군의 생각들이 단어의 지시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연상주의 심리학 이론을 확장한 것인데, 리처즈와 오그던은 의미의 안정, 혹은 결정에 있어서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리처즈는 문맥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단어의 의미란 대표성을 띤 위임 받은 효력, 혹은 표현임을 내세운다.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자체에 대한 지각은 불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사물로서 지각한다. 위아래의 정도를 막론하고 모든 사고와 지각은 일종의 분류 작업(sorting)이다. 우리의 사유와 지각은 비교나 대조 등을 동반하는 일종의 나란히 하기(paralleling) 과정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리처즈의 이러한 주장은 체계 안에서의 차이로 의미를 설명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성격과 매우 흡사하다. 사고와 지각과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 역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어휘들 중에서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선택된 대표자이다. 따라서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제와 선택, 부재와 현존의 관계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문맥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 단어가 대표성을 위임 받은 문맥의 실존된 부분들이다”(PR 35). 그런데 문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발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의 의미는 문맥이 달라짐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문맥이 계속 변화한다면 문맥에 의존하는 의미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부동한 의미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리처즈는 이러

한 의미의 불확정성을 포스트구조주의자들처럼 극단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 모두를 다 포함하는 문맥이란 불가능하며, 의미의 가변성은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발화 문맥 안에서 담론의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고 리처즈는 본다.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의존한다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비교하는 일은 두 단어의 각각의 문맥을 다 비교하는 일이 될 터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시간 낭비이기도 하다.

단어의 의미가 발화 상황에 의존하여 가변적이고 다의적이라면 하나의 단어에는 단 하나의 고유한 의미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상징의 중층 결정과 마찬가지로 의미는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며, 고정된 단일함으로 환원되기를 거부한다. 언어의 다의성을 결함으로, 명증성을 말의 미덕으로 간주한 예전의 수사학과 달리 리처즈가 주장하는 신수사학은 애매성을 오히려 말의 풍부한 원천이자 미덕으로 간주한다. 뜻 겹침을 배제한다면 시나 종교적 담론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중의성을 이용한 말장난은 사고의 다양한 측면과 활력을 증명하는 기지의 산물이다. 다의성이 언어의 근본적 속성이자 풍요로운 자산이라면, 일물일어설은 언어에 대한 독재이며, 전략 이전 아담의 언어로나 가능했던 신화이다. 하나의 단어에는 단 하나의 고유한 의미만 존재한다는 미신은 기호가 곧 실재라는 마법의 언어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기호와 지시 대상 간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며, 언어와 실제 경험 간에는 기호나 상징으로 다 포섭할 수 없는 잉여가 존재한다. 리처즈는 이 간극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해체주의자들과는 달리 기호를 통해서 기의의 세계에 불완전하게나마 도달할 수 있다는 인문주의자의 신념을 견지하지만, 그렇다고 기호와 기의의 일치를 주장하는 이상론자도 아니다. 리처즈가 보기에 하나의 기호에 하나의 고유한 의미가 대응한다는 미신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는 언어의 의미가 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이다. 용법주의(Usage Doctrine)는 정확하고 좋은 용법이 곧 말의 의미라는 생각인데, 이 또한 “좋고 바른” 어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배타적으로 다른 용법이나 소위 말하는 ‘양식’에서 벗어난 어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리처

즈는 언어의 다의성과 의미의 다양한 층위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민주 시민 사회의 언어와 의사소통은 의미의 다양성과 중첩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한 단어의 의미가 문맥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어휘와 대표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할 때 그는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병폐는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청자나 수신자에게 강요하거나 설복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리처즈는 옛 수사학이 논쟁술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전투적 충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사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조망을 상실하고 자신의 이해에 함몰되어 정신의 눈가리개를 뒤집어쓴다고 말한다(PR 24).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정 연설에 관한 설명에서 제시하듯 고대 그리스의 경우 노예들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경우만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불행하게도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학의 목적을 설득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여러 담론들이 지향하는 자기표현이나 특정한 관점의 설명과 같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논쟁은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 장관들의 끝없는 회의와 흡사하다. 또한 논쟁이란 일반적으로 전쟁과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련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데, 언어의 다의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주장자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시민 수사학을 위한 대문을 열어준다. 리처즈가 논쟁술에 기반을 둔 폭력적인 수사학에 반대하며 다의성 및 표현과 설명을 아우르는 신수사학을 주장할 때 그는 전쟁에 대한 그의 혐오를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평화의 담론에 대한 필요성을 전면에서 부각시킨다.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은 특정 문장이나 발화 단위 안에서 말들의 상호 작용으로 발전한다. 제3장 「말들의 상생」은 문맥 이론을 문장 배열 안으로 좁혀 놓은 것이다. “말들의 상생”이란 표현은 존 던(John Donne)의 시 「황홀경」 (“The Extasie”)에서 따온 것이다.

사랑이 이처럼 서로서로  
 두 영혼들을 상생시켜 줄 때  
 그로 인해 흘러나온 보다 유능한 영혼이  
 외로움이란 결함을 막아 줄 것이다.

When love, with one another so  
 Interanimates two soules,  
 That abler soule, which thence doth flow,  
 Defects of loneliness controules. (ll. 41-44)

사랑의 연금술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영혼이 돌이면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교섭의 순간을 노래한 존 던의 시에서 빌려 온 상생이란 단어, 즉 서로가 각자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를 리처즈는 문장 안에서 단어들의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차용한다. 단어들은 고유한 의미를 문장이나 발화의 단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 교통 신호등의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각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세 가지 색상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의 불이 작동하는 순간 다른 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에 있다. 한 단어의 의미는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와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그 관계가 변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의미 또한 바뀌게 된다. 의미는 문맥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저자나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의미가 특정한 발화 문맥이나 문맥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읽기와 자세히 듣기가 필수적이다. 내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근육의 골격 구조를 이용해야만 하고 이들의 지탱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현 문구는 다른 문맥에 처한 다른 단어들의 용법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거대한 체계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PR 65). 이것은 한 단어의 의미란 위임 받은 대표자의 기능과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종된 문맥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리처즈는 생리 심리학이나 게슈탈트 심리학의 주장을 언어의 의미론에 문맥이라는 용어로 치환하여 적

용하고 있다. 부분과 전체는 상호적인 영향 관계에 있으며, 부분은 전체 안에 깃들고, 전체는 부분들로 구성된 연결망 안에서 상호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관계에 자리한다. 리처즈의 문맥 안에서 말들의 상생에 대한 설명은 공자가 주장하는 정과 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일되는 성실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며, 부분과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콜리지의 상징 개념과 상상력 이론을 변용한 것이다.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 해당 단어와 함께 받아들이는 다른 단어들의 의미와 관련지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에 이르게 된다. ‘구체적’(concrete)이란 영어 단어는 어원적으로 이미 “함께 자라고 있는, 공생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리처즈의 의미의 상생 이론은 고전적인 문학을 통하여 사고의 발전과 자기 완성에 이르는 톨스토이의 진정한 오염 이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성실의 경지를 담고 있는 시가 갖는 교육 효과를 강조한 공자의 문학관에 맞닿아 있다. 개체와 사회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 하듯, 언어라는 사회적 관계망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신이나 백치뿐이라면 완전히 혼자 동떨어진 단어는 무의미할 뿐이다(PR 70).

앞서 단어의 의미에 관한 용법 이론과 고유한 단일 의미를 부정한 리처즈는 단어의 의미 규명을 위한 몇 가지 준거들을 제4장에서 제시한다. 이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용법 이론의 오류나 말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마술적인 호칭 이론의 잔재라며 배격한다. 말에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몇몇 인공어를 제외하고 자연어의 경우는 불가능한 꿈이다. 의미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토론이나 이론을 통한 우리들의 상호 이해나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언어가 그 풍만한 다의성과 의미 변화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특히 창조적인 언어의 생명력은 상실될 것이다. 리처즈는 특히 용법이 곧 의미라는 주장을 특정한 동호회 기운(정신)(Club Spirit)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용법주의를 따르는 것은 시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특정한 감정의 과잉 상태에 탐닉하는 상투적 반응과 비슷한 태도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성실의 결여에 해당한다. 용법 이론에 복종하는 태도는 특정한 화자들의 태도와 관습에 언어의 작용을 엮어매는 것으로 특히 발음의 경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클럽 정신에 복종하는 화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도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셈이다. 클럽 정신에 충실한 용법주의의 문제는 자신과 다른 모든 용법을 부정확하고 좋지 못한 것으로 물리친다는 점이다. 클럽 정신과 다르다는 사실이 좋고 나쁨과는 무관하게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된다. 사회가 비교적 단순하고 복잡하게 분화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클럽 정신이 교육적인 본보기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었겠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배타적인 분파주의는 귀족적인 속물주의의 잔재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처즈가 보기에 이러한 형태의 전문화된 용법에 의한 지배 형식, 모든 언어에 대한 사회적 혹은 속물주의적 통제의 기도는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이다. 신수사학, 혹은 “개선된 수사학”(78)의 임무 중의 하나는 발음이 되었건, 의미와 해석의 문제가 되었건 이러한 태도와 믿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수사학이 공공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전제로 해서 발달할 수 있다면, 클럽 정신은 대중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멸시와 부정으로 이어진다. 말과 사유, 삶과의 밀접한 관계, 확장된 문맥 안에서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위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어휘 선택은 곧 가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대변한다. 클럽 정신의 배타성을 비난하는 리처즈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와 태도를 보임으로써 크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일종의 클럽 정신에의 복종을 아이러니하게도 보이고 있다. 언어는 생각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고를 지배하기도 한다.

제5강 「은유」와 제6강 「은유의 구사」는 『수사학의 철학』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며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말들의 상생”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비유이다. 말들의 의미 전환을 다루고 있는 이곳에서 리처즈는 의미의 변화를 이해하는 일은 곧 언어의 속성을 이해하는 일이며, 이것은 다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비유란 달라 보이는 것 가운데서 친밀성과 유사성을 발견하는 능력의 소산이다. 비유란 축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의 구분을 넘어 항상 편재하는 언어의 원리이다. 이곳에서 리처즈는 언어를 비유의 기동군

(mobile army)이라고 주장하며 비유가 언어의 본질적 속성임을 강조한 니체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리처즈는 앞서 의미를 다양한 문맥의 실존된 부분들을 새로운 통일성 안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대표적인 효과(표현)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들 여러 요소를 새로운 통일적 관계로 맺어 주는 것이 바로 비유이다. 비유는 하나의 단어로 두 가지 생각을 보여준다. 리처즈의 정의에 따르면 비유란 서로 상이한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하나의 단어나 표현으로 활성화해 주거나 지탱시켜 주는데, 이때 그 한 단어나 표현의 의미는 서로 상이한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상호 작용한 결과물이다(PR 93). 비교 혹은 대조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유 자체가 이미 비유적이기 때문에 사유를 매개하고 때로는 지배하는 언어 역시 비유적이다. 비유란 하나의 표현 안에 상이한 대상에 대한 두 개의 사고를 담고 있는데, 리처즈는 이때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을 주지(혹은 취지, tenor)라고 부르고, 비유의 대상이 되는 운반체를 매체(vehicle)라고 부른다. 취지와 매체는 서로 유사성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 유사성에 의해서 이들의 상호 작용이 발생한다.

리처즈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적 지각의 세계는 단어들 사이의 의미의 교환이라는 비유의 과정의 투영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우리의 지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대조의 과정을 통한 일종의 분류하기 가운데서 “.....으로서” 지각하는 것이다. 사유 자체가 이미 언어의 회로를 통해서 가능하며 언어의 회로를 통한 사유는 다른 것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언어 역시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의미 가운데 다른 배제된 의미의 망들을 끌어들이므로써만 가능하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이미 비유적 언어가 투영된 세계이며, 지각된 세계에 투영된 비유는 앞서간 비유적 표현들의 축적물이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의 원천에 도달하는 길은 불가능하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비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사람이 바로 콜리지라고 리처즈는 주장한다. 콜리지의 상상력 이론은 비유에 대한 생각, 즉 그의 상징론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콜리지에게 상징이란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단위의 살아 있는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반투명한 경우이다. 상징이란 자연계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운데 부분들이 서로 상응하며

유기적인 통일성을 유지한다. 보편과 특수, 개별자와 전체, 류와 종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조응 관계를 포착하는 능력이 콜리지가 말하는 상상력이라면, 이 상상력의 구체적인 소산이 바로 상징이다.

자연계의 위대한 유기체의 하나로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를 생각하거나 온 세상의 식물을 명상하거나 간에, 마찬가지로 나는 그러한 경외감을 갖는다. 자, 보라!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 그것은 외적인 삶을 시작하고 모든 원소들을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동화시킴으로써 공개적인 교류에 들어간다. 동시에 이것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며, 빨아들이고 호흡하며, 냉각 증기와 향기를 뿜으며, 대기의 양식이자 음악인 치유하는 기운을 자신을 먹여 살리는 대기 속으로 불어넣어 준다. …… 자, 보라! 전체의 가장 깊은 부분들 속에서, 즉 뿌리의 씹 없는 유기적 운동을 떠받치면서, 어떻게 그것이 자연의 전체적으로 침묵하거나 기초적인 생명의 가시적인 유기체가 되며, 따라서 하나의 극단을 체현함으로써 다른 극단에 대한 상징, 즉 보다 고차원적인 이성의 삶에 대한 자연의 상징이 되는지를. (PR 111)

살아 숨 쉬는 자연계의 피조물 가운데서 절대 이성, 창조주의 힘을 잃어 내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된 조화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콜리지의 이신론적 상상력은 개별자를 전체적인 질서 안에서, 전체가 개별자를 감싸 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상징으로 작용하는 유기체를 발견한다. 단어가 식물의 일부분이며 발아라는 콜리지의 생각은 물론 호라티우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라티우스는 그의 『시학』에서 잎이 싹이 터서 자라다 낙엽 지고 다시 새 순이 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단어 또한 유기적인 생명체이므로 새 단어가 낡은 단어보다 생명력이 있고 신선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부분과 전체가 서로 공개적으로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변화의 과정을 보인다는 콜리지의 상징론을 리처즈는 자신의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끌어들이는다. 예술 작품이 이질적인 충동들을 조화로운 질서 가운데로 만족스럽게 변화시켜 준다면, 비유 역시 상이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비유를 잘 구사한다는 것은 훌륭한 문학적 가치 구현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특성상 가능한 한 서

로 멀리 동떨어진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들을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함께 가져다 놓는 것은 시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과업이다”라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기수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의 발언에 리처즈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리처즈는 비유가 너무나 이질적으로 동떨어진 것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서로 함께 가져다 놓는다는 브르통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데, 비유가 극단으로 치우친 경우인 남유(catachresis)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비유란 지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위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것은 사고와 정서의 합일이라는 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유를 위한 비유는 사고의 발전을 방해한다.

비유는 비교에 의해서 작동하므로 비유를 구사하는 일은 지적인 인식과 발견에 뒤 따른다. 인간의 정신은 두 가지 상이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작동하는 기관인데, 정신이 상이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거의 무한대로 많다. 따라서 비유를 잘 이해하고 구사하는 일은 해석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제하는 일 가운데로 더 깊숙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리처즈가 말하는 ‘통제’란 그 자체가 하나의 비유로 재질서화를 의미한다. 단어란 삶을 모방하는 매체가 아니라 삶 자체를 질서 있게 회복시키는 것이 그 진정한 임무라고 리처즈는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의 속성을 이해하는 일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를 줄이는 일과 직결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상징이 보여 주는 “공개적인 교감”과 마찬가지로 삶을 무질서로부터 건져 올려 주고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 즉 길이다. 리처즈가 말하는 신수사학은 언어의 작용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치유하는 일인데, 이곳 『수사학의 철학』에서 그는 앞선 저서들에서 언어의 작용을 과학의 언어가 보여 주는 지시적 기능과 시의 언어가 예증하는 정서적 기능으로 이원화해서 구분했던 것을 더욱 구체화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시와 과학, 진술과 의사 진술로 수렴되었던 언어의 두 가지 기능은 사실상 콜리지의 상징과 상상력 이론에서 지성과 감성의 통합으로 그 한계를 보인 셈이다. 따라서 리처즈의 수정된 언어 기능에 관한 설명에서 비유의 주지(취지)와 매체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처

즈의 비유론은 기본적으로 의미의 다의성을 전제로 한다.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태도, 즉 세상이나 상대에 대해 우리들의 자세를 적응시키는 잠재적 행동을 반영한다. 따라서 비유에 대한 해석은 믿음과 더불어 우리들의 세계관으로 이어진다. 그러니만큼 비유의 해석, 더 크게는 언어의 의미 해석은 우리들의 믿음의 투영이다. 리처즈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석법은 주지(취지)를 떼어 내어 이를 진술이라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달 매체를 떼어 내는 방식이며, 셋째는 주지와 매체를 함께 취해서 이들의 관계에 관한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지와 매체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 제시하는 방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기독교 초기 교부들의 성찬 의식에 사용된 빵과 포도주에 대한 논쟁은 그들의 교리적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유적 언어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찬식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비유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진다. 리처즈의 네 가지 해석 방법은 기독교 해석학에서 문자적, 비유적, 유비적, 그리고 신비적 해석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리처즈는 이들 네 가지 의미 해석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제공하지 않으므로써 과연 발화 현장에서 이러한 해석이 어떤 구체성을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생략한다. 이로 인해서 주지와 매체의 구분 자체가 다소 모호한 것처럼 현실 담론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단어의 의미가 애매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면, 담론 역시 정서적 의미와 지시적 의미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해석의 차원 역시 중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언어의 사용과 의미 해석에 있어서의 사소한 실수들이 보다 큰 인격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되는 실수들을 축약해서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의 오해와 병적인 의사소통의 결함들을 탐구하는 일이야말로 보다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희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리처즈는 생각한다. 훌륭한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의 수사학은 영혼의 질서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언어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로 이어질 것

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피력한다. 이러한 낙관적인 희망은 그의 대중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비유의 구사를 천재의 소산이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리처즈는 비유를 언어의 편재해 있는 원리라고 주장함으로써 비유의 사용을 보편화시킨다. 그의 이론적 주장과 달리 리처즈는 외재적 믿음과 언어로 표현된 믿음을 철저히 분리하지도 않는다. 그의 언어 속에는 그의 개인적인 신념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의 언어는 그의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한다.

### III

리처즈의 『수사학의 철학』 이 수사학의 전체적인 조망을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의 신수사학은 예전의 수사학이 의사 전달의 수단인 언어 자체의 성격에 대해 강그리 간과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출발한다. 리처즈는 어떻게 단어가 의미를 갖는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기본 속성인 비유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간다. 그는 발화 상황을 중시하지만 상황 문맥이 지닌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는다. 구체적 의미의 집결체인 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체계로서 주체를 지배하고 소환하고 있다는 알튀세나 푸코의 주장과 달리 리처즈는 언어의 창조적 사용과 이를 통한 마음의 개발과 자기완성을 여전히 신뢰하는 낭만주의자이자 고전적인 인문주의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주체의 자리에 언어를 대신한 구조주의자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에게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서로의 양면이며, 언어가 비유로 이루어졌듯이 사고 또한 비교, 즉 추상과 구체라는 문맥 안에서 일종의 분류하기, 혹은 나란히 하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한다. 사고와 언어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의 특정한 위치와 차이 및 유사성으로 설명하는 점에서 리처즈는 구조주의자들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선구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주체를 언어의 감옥에 수동적으로 가두지 않는다. 의미는 “대표성을 위임 받은 효과(표현)”라는 리처즈의 주장은 드러나지 않고 잠

재적으로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어휘들의 의미가 전제되어야만 특정한 단어의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미를 체계 안의 차이로 설명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입장과 흡사하다. 그렇지만 그는 언어로 말해지지 않고 배제된 채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실존된 부분을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떤 부분들이 실존된 것들이며 어떤 어휘들이 선택에서 배제된 것인지를 모두 다 안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거나 한 일인지, 선택과 배제의 과정에서 보이는 힘의 역학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아마 그 이유는 이러한 비판적 질문을 계속 밀고 나가면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추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유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의미의 대표성 자체를 문제시한다면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궁에 빠뜨릴 것임을 염려한 까닭일지도 모른다.

리처즈는 또한 기표가 기의를 온전하게 대표하거나 지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의미가 차원된다고 주장하는 포스트구조주의자들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언어와 언어적 논리, 즉 변증법을 통해서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기에는 그는 너무도 깊숙하게 전통적인 인문주의자이다. 리처즈는 하버드 대학에서 성경의 읍기, 호머의 서사시, 플라톤의 대화편과 다른 저서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는데,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주목한 것은 사교의 수단인 언어를 통해서 발전된 사유의 단계로의 전이와 자기 성찰을 보이는 인물들의 자기완성의 과정이었다. 사유의 거울인 이 충만한 언어를 리처즈는 공자와 맹자의 중용과 정성, 성선의 개념에서 찾기도 하고, 콜리지의 상상력에서 찾기도 하며, 톨스토이의 성실에서 찾기도 한다. 말년에 그는 고등학교 이후 중단했던 고전 언어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플라톤을 현대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소크라테스를 자신의 문화 영웅으로 재발굴한다. 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은 문답 형식을 통해 지혜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의 변증법은 지성과 감성이 하나로 통일된 최고 수준의 언어이다.

의미의 다의성을 언어의 활력이자 원천으로 치켜세우면서도 리처즈는 오그던과 더불어 이십 대에 시작했던 기본 영어 계획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언어의 창조성을 말

살한다는 비난에 휩싸인다. 용법이 곧 의미라는 용법주의를 당파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던 그는 어휘들이 주도적으로 보이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어휘 850단어를 제안한다.<sup>5)</sup> 이를 바탕으로 그는 성경, 호머, 플라톤을 기본 영어로 번역해 내는데, 의미의 미세한 차이를 자세히 읽어 내던 그가 다의성을 제한하는 이러한 자기모순을 보임으로써 그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 그의 말처럼 시와 종교가 정서적 의미 기능에 충실한 것이라면, 그의 기본 영어 계획은 시와 종교가 주는 환기적인 영역을 과학적인 진술의 언어로 치환시키려는 노력이자 시도인 것이다. 지시적 언어를 정서적 언어로, 정서적 언어를 지시적 언어로, 정서적 믿음을 사실적 믿음으로, 사실적 믿음을 정서적 믿음으로 치환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병적인 오해와 불통이 야기된다고 진단했던 그가 스스로 이러한 오해와 혼동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자가당착을 보여 줌으로써 실증주의적 분석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 환원적 이분법을 폐기한 꼴이 되었다. 신수사학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애매성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 문제를 기본 어휘 제정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이러한 시도야말로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다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의 철학』에서 리처즈가 그의 초기 저작에서 예술 작품이 독자의 영혼에 미친 영향 관계를 중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화자보다 독자(수신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리처즈가 오독과 오해의 모든 원인을 언어의 탓으로 돌렸다는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신자의 능동적 참여와 해석을 강조한다. 옛 수사학이 보여준 청중의 정서에 대한 분석을 무시하고 있지만, 리처즈는 그의 신수사학에서 청중의 해석 능력을 중시함으로써 독자 반응 이론이나 해석학과의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시의 해석에서 그가 보여 주었던 자세히 읽기라는 해석 방법을 여전히 수사학에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리처즈의 신수사학은 언어 예술에 대한 우리들의 상투적 반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수사학을 사고의 기술로 되돌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 마리 호크머스(Marie Hochmuth)의 지적처럼 19세기에 서로 분리되어 있던 시학과 수사학을 20세기에 들어와서 병합한 인물이 리처즈이다(16). 언어의 속성과 의미의 발생 과정을 이해

함으로써 과연 얼마만큼 오해와 불통이 해소되고 치유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

**Notes**

- 1) 리처즈와 데리다와의 관련은 Louis Mackey, "Theory and Practice in the Rhetoric of I. A. Richards." *RSQ* 27: 2(1997): 51-68 참조. 리처즈와 스탠리 피쉬(Stanley Fish)와의 유사성은 Ronald Shusterman, "Blindness and Anxiety: I. A. Richards and Some Current Trends of Criticism." *Etudes Anglaises* 39:4(1986): 411-23 참조.
- 2) I. 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1924;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pp. 190-91. 이곳의 콜리지 번역은 이상섭, 『복합성의 시학』 (서울: 민음사, 1987), 25-26쪽에 의존하여 필자가 수정을 가함.
- 3) 이 책의 출판 년도는 1936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책이 출판된 것은 1937년 1월 14일이다.
- 4) 번역은 박우수 역, 『수사학의 철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19쪽. 필요한 경우 어조 등 약간의 손질을 가함.
- 5) 중국의 표기법 제정과 상용한자 지정은 수차에 걸친 리처즈의 중국에서의 기본 영어 교육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산화 이후에도 리처즈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 참 고 문 헌

- 김학주 역주. 『중용』. 명문당, 1970.
- 김종무 역주. 『논어신해』. 민음사, 1989.
- 리처즈, I. A. 『수사학의 철학』. 박우수 역,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박우수. 「I. A. Richards의 맹자 해석과 번역」. 『수사학』, 7권, 2007, pp. 25-51.
- 이상섭. 『복합성의 시학』. 서울: 민음사, 1987.
- Berthoff, A. E., editor. *Richards on Rhetoric*. Oxford UP, 1991.
- Campbell, George. *The Philosophy of Rhetoric*. Edited by Lloyd F. Bitzer. 1776. Southern Illinois UP, 1963.
- Eliot, T.S.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 1933. Faber and Faber. 1975.
- Harding, D.W. "I.A. Richards." *A Selection from Scrutiny*, Vol. I, compiled by F.R. Leavis, Cambridge UP, 1968, pp. 278-88.
- Hochmuth, Marie. "I. A. Richards and the 'New Rhetoric'." *QJS*, vol. 44, no. 1, 1958, pp. 1-16.
- Hyman, Stanley Edgar. *The Armed Vision*. Alfred A. Knopf, 1948.
- Mackey, Louis. "Theory and Practice in the Rhetoric of I. A. Richards." *RSQ*, vol. 27, no. 2, 1997, pp. 51-68.
- Richards, I. A., et al. *The Foundations of Aesthetics*. Edited by John Constable. 1922. Routledge, 2001.
- \_\_\_\_\_.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1924.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 \_\_\_\_\_. *Coleridge on Imagination*. Routledge, 1934.
- \_\_\_\_\_. *The Philosophy of Rhetoric*. 1936. Oxford UP, 1976.
- \_\_\_\_\_. *Speculative Instruments*. Harcourt, Brace and World, 1955.
- \_\_\_\_\_. *Mencius on the Mind*. 1932. Routledge, 1964.
- Ricoeur, Paul. *The Rule of Metaphor*. Translated by Robert Czerny et al.,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Russo, John Paul. *I. A. Richards: His Life and Work*. Johns Hopkins UP, 1989.

Shusterman, Ronald. "Blindness and Anxiety: I. A. Richards and Some Current Trends of Criticism." *Etudes Anglaises*, vol. 39, no. 4, 1986, pp. 411-23.

## Abstract

### I. A. Richards on Communication and Rhetoric: The “New” Rhetoric of *The Philosophy of Rhetoric*

WooSoo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A. Richards’ deep interest in the communicative function of language and poetry is manifest from his early scholarly career to the last. For Richards, poetry itself is a mode of communication. Since he argue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kind between aesthetic experience and everyday common experience, what matters in poetry is the communication of complex impulses from poet to reader placed in common linguistic situations and efficacy.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ttributes of a language are prerequisite and inevitable for a fulfilled communication and communion of men. His “close reading” is a speculative instrument to read with and to think with. Richards applies his view of a poetic language to his philosophy of the “new” rhetoric. His new or improved rhetoric aims to remedy misunderstandings in communication, mainly due to misinterpretation of ambiguous meanings and verbal contexts and purposes. Metaphoricity is the very source of a language. Rhetoric in Richards shifts its focus from speaker to audience, and an effective communication requires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Confucian sincerity in authentic feelings and intents. By enlarging and idealizing his rhetorical functions to the extent of self-development and self-completion by means of verbal communication, Richards unfortunately disregards the ideological dynamics of language and social beliefs, already and always superimposed on the speaking subject. His contextual theory of

meaning is still stunted by his empirical positivism and psychologism. However, Richards unites poetics and rhetoric in his theory of communication and comprehension.

**Key Words: rhetoric, speech situation, context, sincerity, misunderstanding**

논문접수일: 2022.05.23

심사완료일: 2022.06.09

게재확정일: 2022.06.15

이름: 박우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이메일: wspark@hufs.ac.kr